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01월 05일

SKT(017670)

BUY | TP 55,000원 | CP 53,000원

KT(030200)

BUY | TP 76,000원 | CP 51,600원

LGU+(032640)

BUY | TP 16,000원 | CP 14,560원



Analyst 김홍식 prol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01월 06일 | 산업분석_Update

통신서비스 1월 투자 전략

KT는 이제 본격 상승 예상됩니다

1월 투자 매력도 '보통'으로 유지, 하지만 종목별 투자 매력 차이 크다는 판단

통신서비스 업종에 대한 12개월 투자 의견을 비중확대로 유지한다. 단 2026년 1월 단기 투자 매력도는 보통으로 제시한다. 물론 4분기 실적 부진, 규제 리스크 상존, 5G 추가 주파수 할당 지연 등은 이미 알려진 악재이다. 오히려 서서히 배당 분리 과세 및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밸류업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업종 투자 매력도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통신 3사 중 2026년 유의미한 DPS 또는 주주 환원 금액 증가를 나타내고 높은 주주 환원 수익률이 기대되는 업체가 KT 밖에 없다는 것이 아쉽다. 연초엔 통신 3사간 수익률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며 당분간 KT 위주로 매수에 임할 것을 추천한다.

1월 이슈는 밸류업 정책 될 전망, 특히 자사주 의무 소각 법제화 가능성에 유의

1월 통신 이슈는 많지 않다. 1) KT/SKT 새로운 신임 CEO 선임 후 경영 전략 발표, 2) 미국 어퍼 C 밴드 주파수 경매안 사업자 의견 청취 기간 종료에 따른 주파수 경매 본격화, 3) 과기부 해킹 관련 최종 조사 발표 및 과징금 부과, 4) 자사주 의무 소각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논의, 5) 4분기 실적 프리뷰 등이 주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보면 딱히 국내 통신 3사 주가가 크게 오를만한 재료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미국에서 차세대 네트워크 도입을 위한 투자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내에선 LTE 주파수 재할당만 이루어졌을 뿐 신규 주파수 경매가 언제 이루어질지 아직 알 수 없다는 점이 실망스럽다. 결국 통신 3사 5G 요금제 개편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어 2026년 상반기에도 통신주 Multiple 확장이 나타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더불어 과징금 반영으로 통신사 4분기 실적도 좋지 않을 것이란 점도 부담으로 다가온다. 결국 2026년 초 통신서비스 업종에서는 자사주 의무 소각 법제화 및 배당 분리 과세 수혜주 정도를 추가 상승 재료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KT 외엔 딱히 매력적인 종목이 부재해 섹터 전체적으로 수혜가 제한될 전망이다.

1월 종목별 투자 매력도는 KT>LGU+>SKT, 이제 KT는 적극 매수 추천

통신서비스 업종 12개월 Top Pick을 KT로 유지함과 동시에 1월 통신서비스 업종 내 종목별 투자 매력도를 KT>LGU+>SKT로 선정한다. 월간 Top Pick을 KT로 제시하는데 사실상 해킹 관련 악재는 널리 알려진 반면 밸류업 관련 호재는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외인 한도 및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슈로 2026년도엔 KT가 주주 환원을 전액 배당금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러한 행보는 결국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해소를 이끌 것이다. 향후 시중 금리 인하로 세전 기대배당수익률 5% 수준까지 KT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면 76,000원까지도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1. 1월 통신서비스 업종 투자 매력도 ‘보통’으로 유지

1) 통신서비스 업종 투자의견 ‘비중확대’로 유지

통신서비스 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확대’로 유지,
장기 실적 및 배당 전망 밝고 저
평가 상황이기 때문

통신서비스 업종에 대한 12개월 투자의견을 ‘비중확대’로 유지한다.

이러한 평가를 하는 이유는 1) 장기적으로 보면 이익 성장을 바탕으로 주주이익환원 확대 움직임이 지속될 전망이고, 2) 네트워크 진화 이벤트 및 시중 금리 추이를 감안하면 국내 통신 3사 배당수익률이 과도하게 높은 상황이며, 3) 2026년도 하반기엔 국내에도 주파수 경매 가능성이 높아 새로운 요금제 출시에 대한 기대감 상승이 예상되고, 4) 글로벌 4차 산업 패권 경쟁이 심해지면서 통신 규제 정책이 요금인하 권고에서 통신산업 육성 쪽으로 전환될 전망이며, 5) 본질적으로 2027년에나 통신사업 이익 성장이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지만 차세대 서비스 개시 기대감으로 Multiple 확장 국면이 미리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도표 1. 통신서비스 업종 투자의견

구분	투자의견 (1월)	투자의견 (12월)	등급 변화	사유
통신 업종	비중확대	비중확대	-	- 통신사 장기 주주환원금액 증가 추세 유지될 것 - 금리 감안 시 통신 3사 배당수익률 과도하게 높은 상황 - 주파수 경매 이후 통신사 새로운 요금제 출시 전망 - 통신 규제 정책이 산업 육성 쪽으로 전환될 것 - 이익 성장 기대감 높아지며 Multiple 확장 국면 진입 예상

주: 업종 투자 의견은 향후 12개월 기준으로 비중확대, 중립, 비중축소로 구분
자료: 하나증권

1월 통신주 투자 매력도 보통으로 유지, 배당 성장 이슈 될 종목으로 차별적 매수 접근 추천

2) 1월 투자 매력도 '보통'으로 유지, 하지만 종목별 매력도 차이 크다는 판단

2026년 1월 통신서비스 업종 투자 매력도를 '보통'으로 유지한다. 밸류업 관련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높아질 전망이지만 옥석 가리기에 나설 것으로 보여 통신서비스 업종 자체 보다는 KT에 대한 비중확대에 나설 것을 추천한다.

아직 통신서비스 업황으로 보면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긴 어렵다. 2025년 4분기 실적도 부진할 전망이며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와 같은 규제 리스크도 완전히 소멸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대했던 5G 추가 주파수 할당 및 신규 요금제 출시 논의가 또 연기된 점도 주가 상승의 제약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4분기 실적 부진, 규제 리스크 상존, 5G 추가 주파수 할당 지연 등은 이미 알려진 약재이다. 오히려 서서히 배당 분리 과세 및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밸류업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업종 투자 매력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배당 성향이 40%가 넘는 통신서비스 업종 3개사 중 2026년 유의미한 DPS 또는 주주환원 금액 증가를 나타내고 높은 주주환원 수익률이 기대되는 업체가 KT 밖에 없다는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아마도 통신 3사 모두 탄력적인 주가 상승을 나타내려면 1분기 배당과 실적이 발표되고 난 4월 말 이후가 될 전망이다. 당분간 KT 위주로 매수에 임할 것을 추천한다.

12월 KT 신임 CEO가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KT 주가 상승의 걸림돌이었던 거버넌스 리스크는 비로소 해소되었다.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은 새로운 경영진의 밸류업 정책에 집중되는 양상인데 사실상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밸류업은 이제 국가 정책이기 때문이다. KT의 경우 외국인 한도가 소진되고 자사주 의무 소각 법제화가 추진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자사주 보유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더불어 2026년 4월 배당금부터는 분리과세가 적용된다는 점도 경영진 입장에서 고민해야 할 사항이다. 투자자들이 배당 지급을 선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2026년부터는 연간 2,500억원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 예정 분을 모두 배당금으로 전환 지불할 것이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 지불될 분기 DPS는 600원일 가능성이 높지만 2026년 4월엔 900원으로 YoY 50% 급증이 예상된다. 과거 2023년 8월 김영섭 CEO 선임 이후 KT 주가가 바닥에서 탈피하는 모습을 보였고, 2025년 4월 DPS 600원 상향 조정 전후 KT 주가가 크게 상승한 바 있다. 이제 KT 적극 매수에 나설 필요가 있겠다.

도표 2. 통신서비스 업종 투자 매력도

구분	투자 매력도 (1월)	투자 매력도 (12월)	매력도 변화	사유
통신 업종	3	3	-	- KT/LGU+ 해킹 관련 과징금 반영 가능성 상존 - 통신 3사 2025년 4분기 실적도 부진할 전망 - SKT 3Q 무배당에 이어 4Q도 배당 축소 가능성 높아 - 국내 5G 추가 주파수 할당 논의 연기 5G Advanced 요금제 도입 논의 2026년 말에나 진행될 전망 - SKT/LGU+ 기대배당수익률 많이 낮아진 상황 - 정책 금리 인하 지연 양상, 시장 금리 오히려 상승 추세 - LGU+ 2026년 총 주주환원금액 증가 어려울 전망 - IT 위주로의 수급 쏠림 발생 중, 통신사 매수세 유입 부진 - KT 신임 CEO 확정, 거버넌스 리스크 제거 - 제조사간 경쟁 미약, 국내 통신유통시장 과열 가능성 낮아 - IFRS15에선 보조금 8개 분기 안분, 4Q 마케팅비용 급등 없을 것 - 제 4 이통 주파수 할당 대가 일시납 추진, 사업자 선정 어려울 듯 - 미국 곧 4.0GHz 대역 주파수 경매 예정, 5.5G 도입 이슈 부상 중 - 미국 총 800MHz 주파수 할당 예정, 5G 패권 경쟁 심화 양상 4차산업 패권 경쟁 이슈로 신정권 출범에도 규제 리스크 낮아 - LTE/5G 도입 당시 대비 현재 통신사 Multiple 낮은 상황 40% 이상 배당 성향 기업 배당 분리 과세 추진, 통신 3사 해당 - KT 전액 배당으로 주주환원 검토 중, 2026년 DPS 크게 오를 것

주: 투자 매력도는 향후 1개월 기준으로 5. 매우 높음, 4. 높음, 3. 보통, 2. 낮음, 1. 매우 낮음으로 평가
 자료: 하나증권

최근 3개월간 통신주 수익률은 KOSPI 수익률을 하회, 3사 모두 부진하나 KT 회복세에 주목

3) 12월 통신업종 수익률 KOSPI를 하회, KT 상대적 양호

12월 통신 서비스 업종 수익률은 KOSPI 수익률을 하회하였다. 더불어 최근 3개월간 통신 서비스 업종 수익률 역시 시장대비 부진한 양상을 보였다. 4분기 실적 전망이 좋지 않은 가운데 해킹 관련 이슈가 연말까지 지속되고 거버넌스 리스크까지 부각되었기 때문이었다. 국내 주식 시장에서 주도주 쟁탈전이 심하게 펼쳐졌으나 통신사 분리 배당 과세 수혜 기대감이 부각되기보다는 규제 리스크가 지속함에 따라 상대적 주가 성과가 좋지 못했다.

종목별로는 통신 3사 모두 부진한 주가 흐름을 이어갔다. 하지만 12월 들어서는 KT 주가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아무래도 새로운 CEO가 확정되면서 거버넌스 리스크가 제거되고 배당 분리 과세 실질 수혜주라는 점이 부각되었기 때문이었다.

도표 3. 2025년 12월 통신서비스 업종 수익률 점검

(단위: %, %p)

업종명	1개월 등락률	3개월 등락률	1개월 시장대비 초과수익률	3개월 시장대비 초과수익률
통신업종	1.2	0.2	(6.5)	(22.9)

주: 지수는 12/30일 종가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4. 2025년 12월 KOSPI 대비 종목별 수익률 점검

(단위: %, %p)

종목명	1개월 등락률	3개월 등락률	1개월 시장대비 초과수익률	3개월 시장대비 초과수익률
SK텔레콤	0.0	(1.5)	(7.5)	(24.5)
KT	4.4	4.2	(3.1)	(18.9)
LG유플러스	(2.3)	(4.1)	(10.9)	(27.2)

주: 주가는 12/30일 종가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당분간 밸류업 정책에 주목,
2026년 DPS 폭증 화두 될 KT
는 연초부터 적극 매수를 추천

4) 1월 통신주 종목별 주가 차별화 가능성에 대비, 섹터보단 Top Pick이 중요해

1월에도 국내 통신서비스 업종이 시장대비 우월한 성과를 낼 가능성은 높지 않다. 강세장이다 보니 재료 보유주 위주로 수요가 몰릴 것인데 요금제 개편 기대감이 높아지기엔 시기상조이며 KT를 제외하면 기대배당수익률 또는 주주환원수익률이 타 업종대비 압도적으로 높지도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2026년 1월엔 섹터보다는 탑픽 선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다.

1월 통신 이슈는 많지 않다. 1) 새로운 신임 CEO 선임 후 경영 전략 발표, 2) 미국 어퍼 C 밴드 주파수 경매안 사업자 의견 청취 기간 종료에 따른 주파수 경매 본격화 가능성, 3) 과기부 해킹 관련 조사 발표 및 과징금 부과, 4) 자사주 의무 소각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 5) 4분기 실적 프리뷰 등이 아마도 주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보면 딱히 국내 통신 3사 주가가 크게 오를만한 재료는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미국에서 차세대 네트워크 도입을 위한 투자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내에선 LTE 주파수 재할당만 이루어졌을 뿐 신규 주파수 경매가 언제 이루어질지 아직 알 수 없다는 점이 실망이다. 결국 통신 3사 5G 요금제 개편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어 통신주 Multiple 확장이 나타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더불어 과징금 반영으로 통신사 4분기 실적도 좋지 않을 것이란 점도 부담으로 다가온다.

결국 2026년 초 통신서비스 업종에서는 자사주 의무 소각 법제화 및 배당 분리 과세 수혜주 정도를 주가 상승 재료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인데 안타깝게도 KT 외엔 딱히 매력적인 종목이 부재하다는 판단이다. LGU+는 주주환원 증가분 대비 주가 상승이 충분한 상황이며 SKT는 DPS 흐름이 여전히 좋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1월엔 KT 위주로 제한적인 통신주 매수에 나서고 2026년 4월 이후 종목 확대에 나서는 전략을 추천한다. 새해 초엔 다시 밸류업 이슈가 급부상할 KT에 집중하면서 섹터보다는 종목 선택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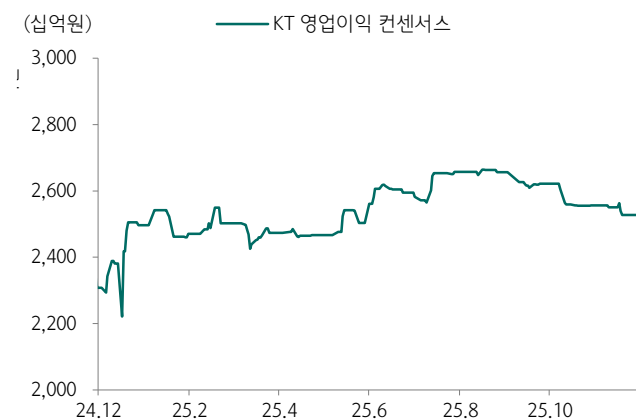
도표 5.1월 통신서비스 업종 이슈 점검

해킹 관련 이슈/거버넌스 리스크
해소, 2026년 밸류업 이슈 다시
부상할 KT 위주로 제한적 비중
확대 추천

구분	내용
긍정적 요소	4월부터 통신 3사 배당소득세 분리 과세 적용, 세후 수익률 높아 KT 수혜주로 분류될 전망 - 자사주 의무 소각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통과 유력, KT 전액 배당으로 주주 환원 진행할 것 - KT 신임 CEO 확정, 거버넌스 리스크 소멸 - 미국 어퍼 C밴드 주파수 경매 개시, 국내도 점차 네트워크 진화 기대감 높아질 전망 - AI 성공을 위해 네트워크 고도화 필요성 부각 중, 5G Advanced 도입 이슈 될 전망 - 양자암호통신 중요성 부상, 차세대 서비스에 기본 탑재되며 킬러 서비스 역할 수행할 듯 - 신정권 출범에도 통신요금인하 보단 네트워크 투자 활성화에 규제 정책 힘 실릴 전망 - 가입자 유치 강도 높아지는 상황이나 IFRS 회계 특성상 통신사 특정 분기 마케팅비용 급증 어려워 - 제조사간 경쟁 어려워 단통법 폐지에도 국내 통신 유통 시장 크게 영향 받긴 어려운 상황 - 정책 금리 인하 및 시중 금리 하락으로 통신사 높은 배당수익률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 규제 당국 추진에도 제 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 가능성 낮음, 재무적 이슈 여전히 크기 때문
부정적 요소	- 국내 LTE 주파수 재할당 외 신규 주파수 경매 없는 상황, 요금제 개편 늦어질 듯 - KT/LGU+ 과징금 부과 가능성 존재, 2025년 4분기 이익 전망치 낮아질 가능성에 유의 - 통신 3사 3분기에 이어 4분기 실적도 부진할 전망, 일회성비용 반영 가능성 높아 - SKT 3분기 무배당 선언에 이어 4분기 배당금도 감소 전망, 기대 배당수익률 낮아질 것 - LGU+ 2026년 자사주 소각 규모 감소로 연간 주주이익환원 규모 올해 수준에 그칠 전망 2024년 이후 트랙픽 정체 양상 심각, 요금제 개편 없을 시 통신사 매출 증가 우려감 커질 것 - 통신사+금융권 합산 알뜰폰 M/S 60%로 제한 전망, MVNO 가입자 확대에 제동 걸릴 전망 5G 순증 가입자수 월 20만명대로 급감, 이동전화매출액 성장 우려 커질 전망 - AI 등 신사업 성과 부진, 유료화/요금제 도입 험난한 상황 - 국내 통신사 PBR 낮지만 해외 통신사 대비 ROE가 낮은 편
종합 평가	해킹 리스크 존재/4분기 실적 전망 부정적, 하지만 KT는 매력적이라 선별적 매수 접근 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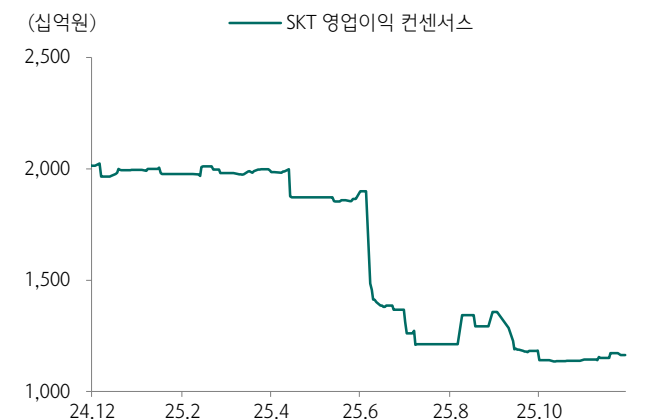
자료: 하나증권

도표 6. KT 2025년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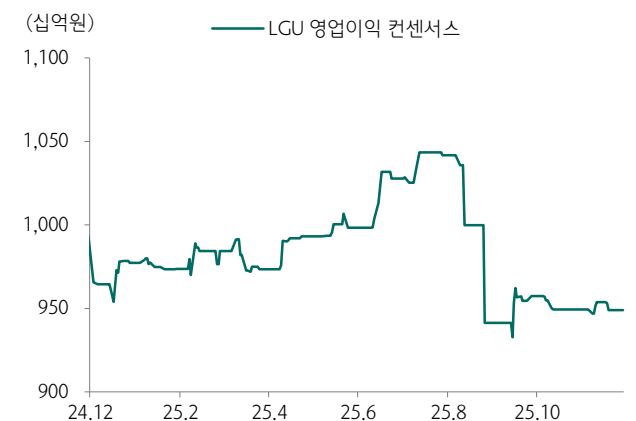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7. SKT 2025년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8. LG유플러스 2025년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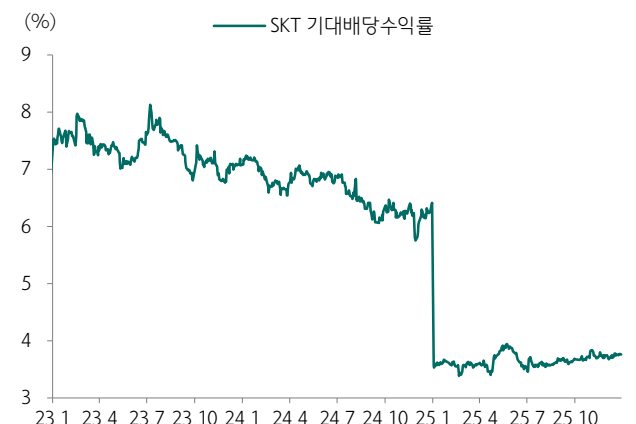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9. KT 기대배당수익률 추이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0. SK텔레콤 기대배당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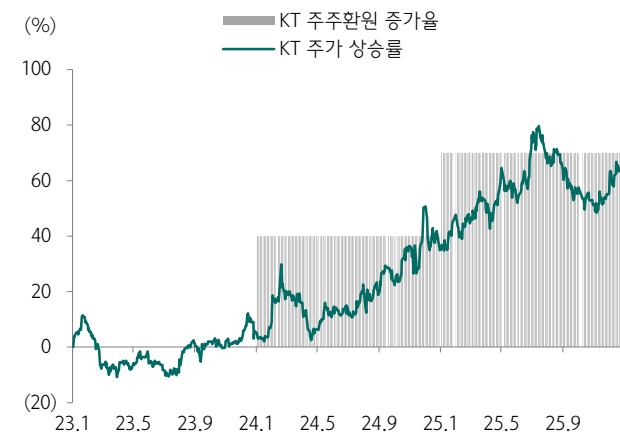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1. LG 유플러스 기대배당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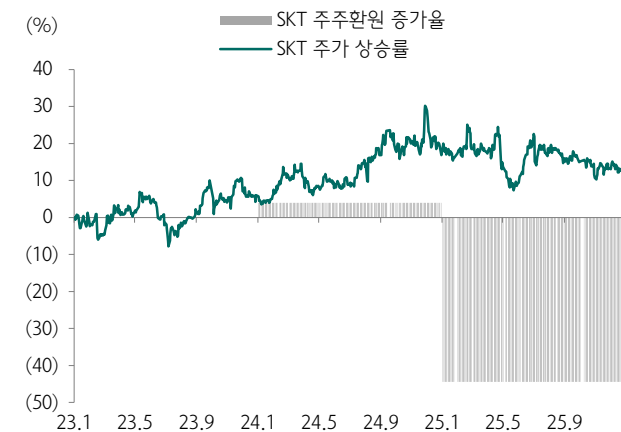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2. KT 2년전 대비 주주환원 vs 주가 상승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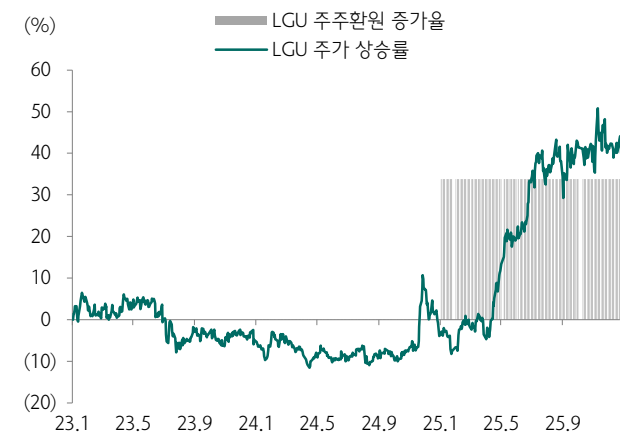
주: 2023.1=100 기준, 2025년 주주환원금액은 하나증권 추정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3. SK텔레콤 2년전 대비 주주환원 vs 주가 상승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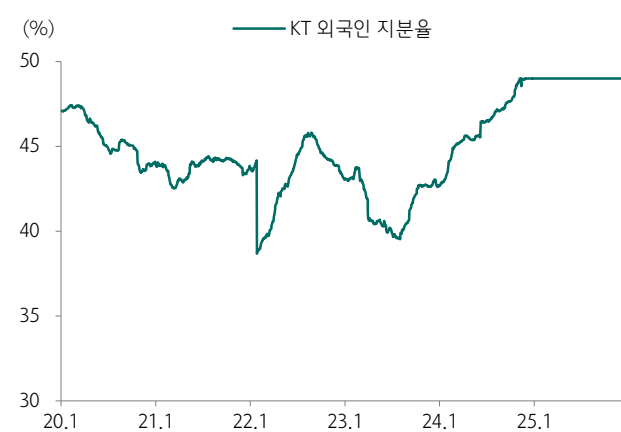
주: 2023.1=100 기준, 2025년 주주환원금액은 하나증권 추정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4. LG유플러스 2년전 대비 주주환원 vs 주가 상승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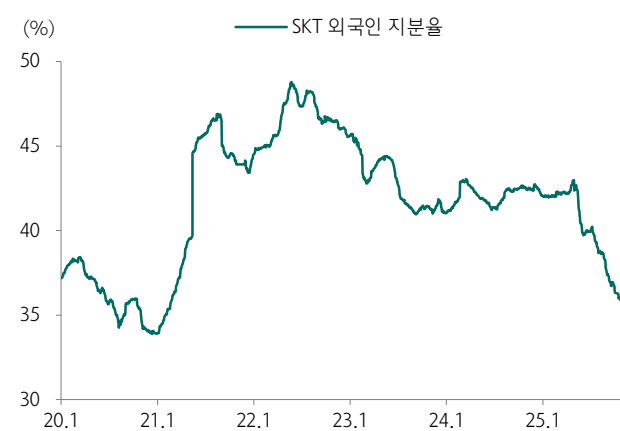
주: 2023.1=100 기준, 2025년 주주환원금액은 하나증권 추정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5. KT 외국인 지분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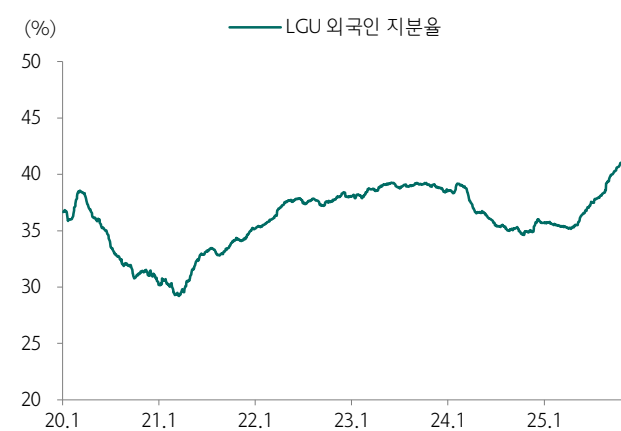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6. SK텔레콤 외국인 지분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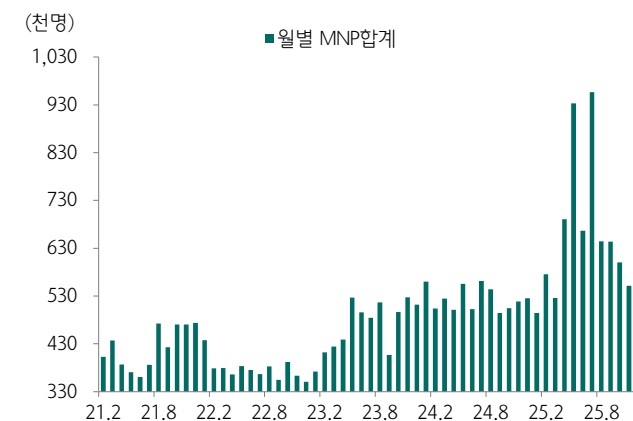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7. LG유플러스 외국인 지분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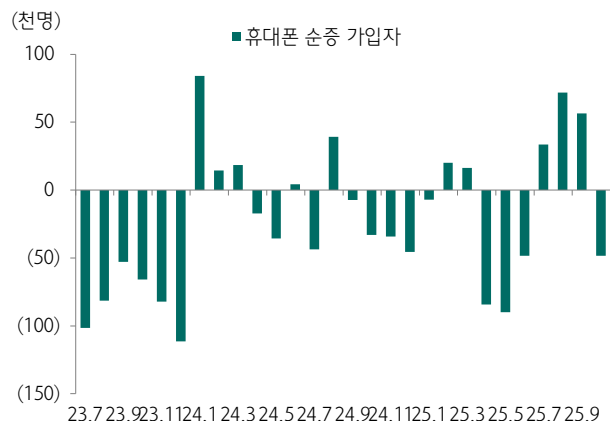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8. 월별 이동통신 MNP 합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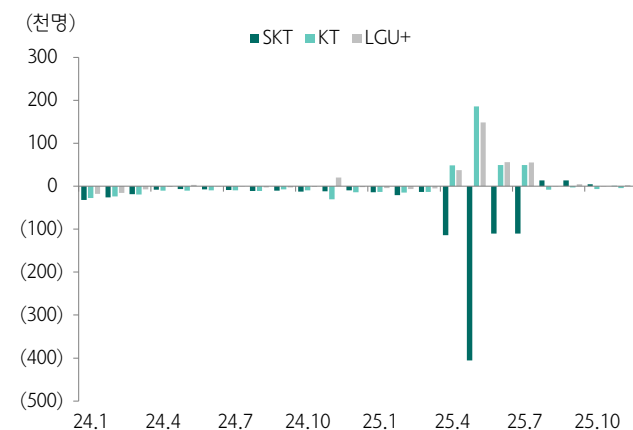
자료: KTOA, 하나증권

도표 19. 휴대폰 순증가입자수 추이(통신 3사 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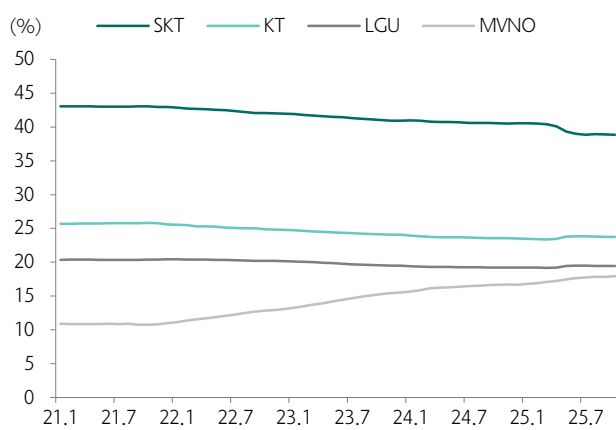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0. 사업자별 MNP 순증(순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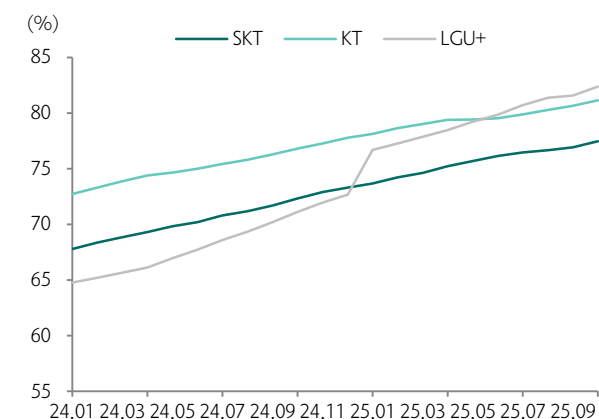
자료: KTOA, 하나증권

도표 21. 휴대폰 누적가입자수 M/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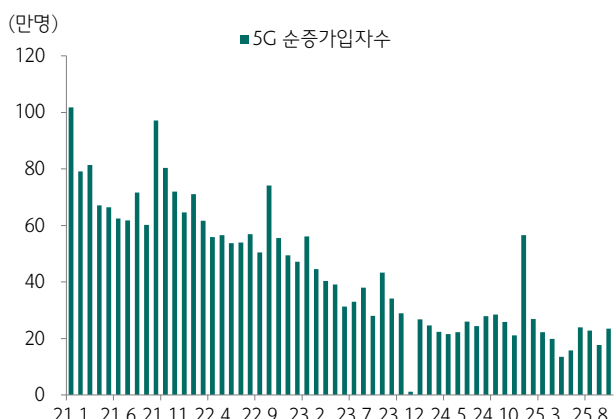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2. 통신 3사 5G 보급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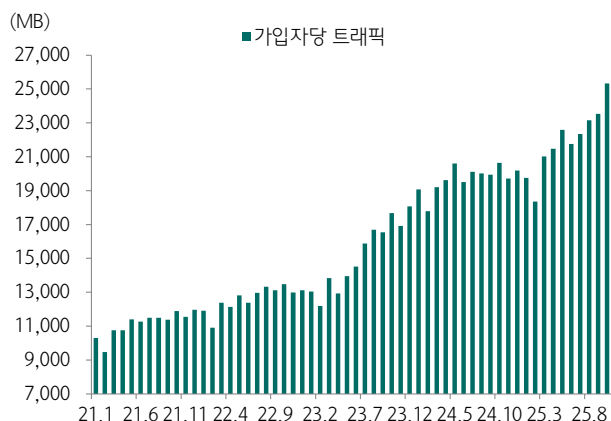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3. 5G 순증가입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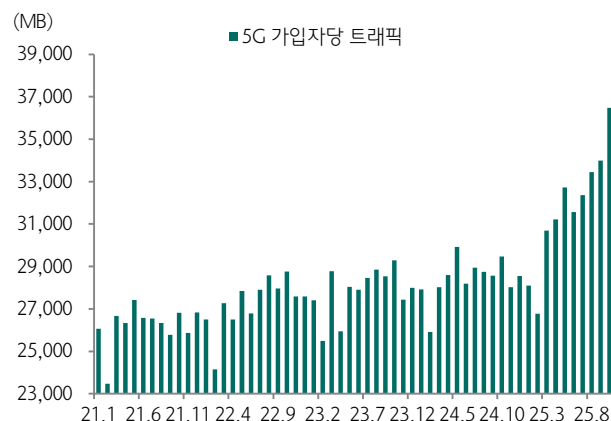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4. 국내 가입자당 트래픽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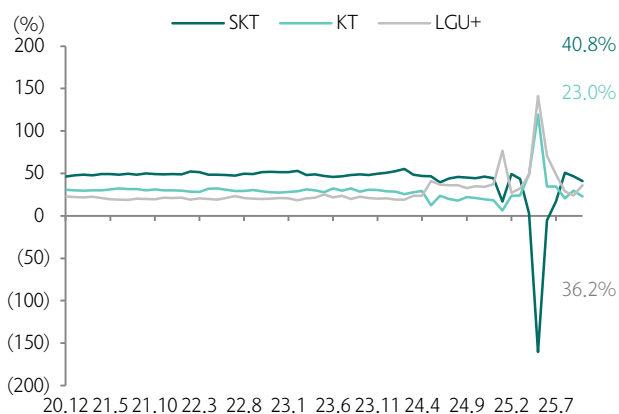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5. 5G 가입자당 트래픽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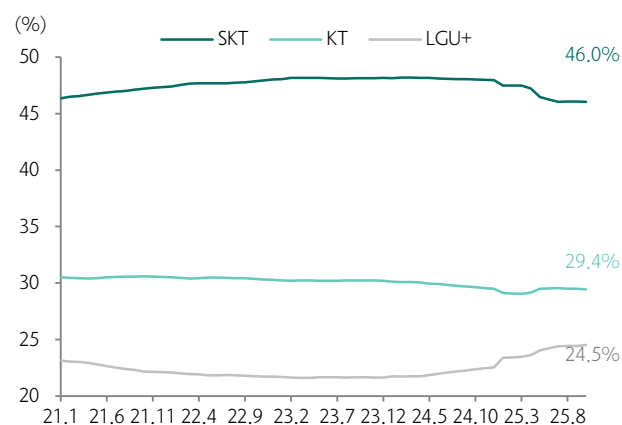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6. 5G 순증 가입자 M/S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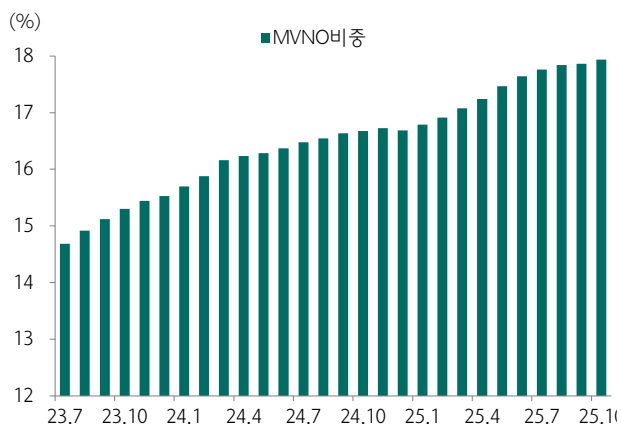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7. 5G 누적 가입자 M/S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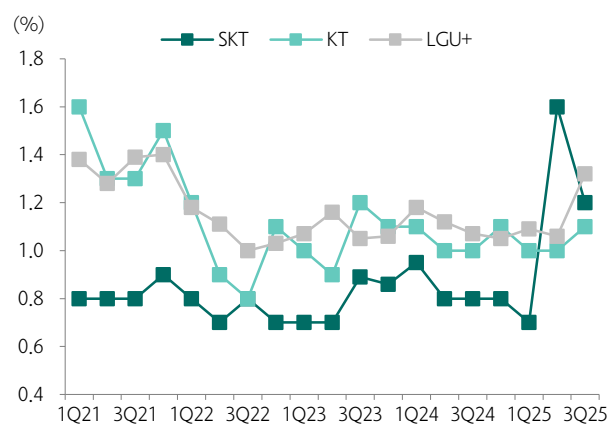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8. MVNO(재판매)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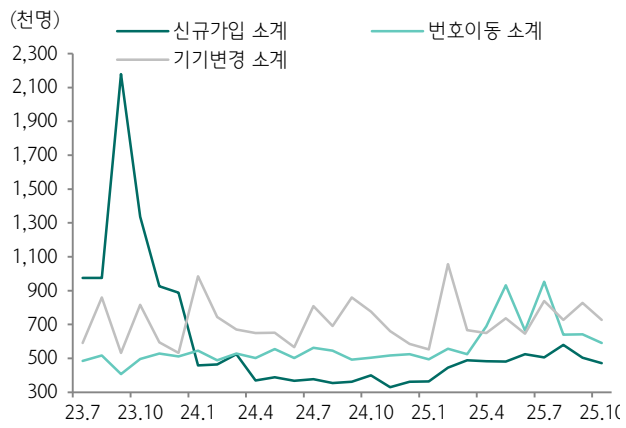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9. 통신 3사 분기별 해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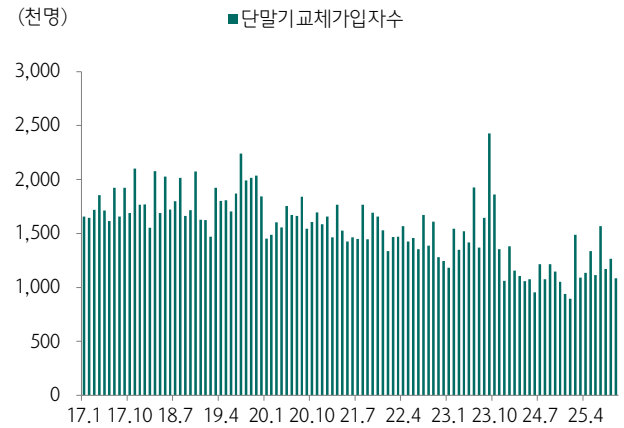
자료: 각 사, 하나증권

도표 30. 이동전화 가입 유형별 가입자수 추이 (재판매제외)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31. 통신 3사 단말기교체가입자수(신규+기변+MNP) 합계 추이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2. 12개월 Top Pick은 KT로 유지, 1월 투자매력도는 KT>LGU+>SKT 순으로 평가

1) 12개월 Top Pick을 KT로 유지

12개월 Top Pick을
KT로 유지,
2026년에 높은 DPS 상승 예상
되기 때문

통신서비스업종 12개월 Top Pick을 KT로 유지한다. 1) 장/단기 이익 흐름 및 성장률, 2) 장/단기 배당 또는 주주이익환원 성장률, 3) 기대 배당 수익률 및 주주환원 수익률, 4) 네트워크 경쟁력 및 차세대 서비스 도입에 따른 수혜 정도, 5) M/S 추이 및 매출액 성장률, 6) 마케팅비용/감가상각비/경비 등 비용 전망, 7) 정부 규제 영향, 8) 유통 경쟁력 및 유통 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 9) 신사업 및 M&A가 실적 및 주가에 미치는 영향, 10) 자회사 실적 및 IPO 추진 예상, 11)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 및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이러한 기준 하에 향후 12개월간 투자 매력도를 평가하면 통신 3사 중 KT가 가장 투자 유망하다는 판단이다.

무엇보다 KT를 12개월 장기 Top Pick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2026년까지 장기 높은 DPS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본사 및 자회사 이익 발생 규모로 봤을 때 그렇다. 먼저 본사 실적 전망이 밝다. 인건비 및 제반 경비 영향이 크다. 여기에 3차 상법 개정을 통한 자사주 강제 소각 법제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 한도 문제로 자사주 소각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면 KT 경영진이 주주환원금액을 전액 배당금으로 지급할 공산이 크다. 이미 배당 분리 과세가 시행된 상황에서 2026년 KT DPS가 3,800원까지 높아질 수 있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현금 흐름 창출을 선호하거나 세후 기준 수익률에 민감한 투자자들에게 높은 가점을 얻을 수 있어 수급상 유리함이 기대된다.

도표 32. 통신 3사 투자 환경상 긍정적/부정적 요인 점검

구분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
KT	- 인건비/경비 감소로 본사 이익 성장 장기 지속될 전망 - 주주 환원 전액 배당금으로 지불할 것, 주가 할인 요소 제거될 듯 2026년 DPS 상승 폭 크게 나타날 전망 - 실질 자산가치대비 시가총액 작은 상황	- 해킹 관련 비용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 - 과다한 영업비용 존재 - 외국인 한도 소진/자사주 종료, 수급상 불리함 존재 - PBR 낮지만 3사 중 ROE도 가장 낮은 편
SKT	- 일회성비용 제거 시 실적 양호, 펀더멘탈 훼손 없어 - 낮은 기저로 2026년도엔 높은 이익 성장 전망 - SK브로드밴드 실적 호전 본격화, 자회사 배당금 유입 지속될 전망 2026년도엔 다시 DPS 상승 가능성 높아	- 일회성비용 급증으로 2025년 영업이익 급감 불가피 - 배당금 수준 한 단계 낮아질 전망, 상대 기대배당수익률 낮아 - 투자자 신뢰도 저하, 저평가 국면 지속될 것 - 이동전화매출액 정체, 단기 가입자 M/S 하락 양상
LGU+	- 이익 성장률/배당 성향 수준으로 볼 때 장기 배당 증가 여력 존재 - 비용 이슈 종결, 이익 측면에서 양호한 흐름으로 전환 예상 2026년 높은 연결 영업이익 성장 기록할 전망 - 통신 3사 중 PER, PBR 가장 낮음, 상대 서비스 매출액 성장률 높음	- 예상보다 높은 일회성비용 발생, 2025년 이익 정체 전망 - 이동전화매출액 성장 둔화, B2B 매출 성장 폭 둔화 - 과거 대비 낮은 5G 순증 가입자 M/S 기록 중 - 주주환원 규모로 보면 2026년 단기 정체 예상
종합평가	장기 DPS 증가 흐름 지속, 비용 구조 개선 가능성을 감안해 KT를 12개월 최선호주로 선정	

자료: 하나증권

1월 종목별 투자 매력도는
KT>LGU+>SKT 순으로 평가,
연초엔 밸류업 이슈 커질 KT 집
중 매수를 추천

2) 1월 매력도는 KT>LGU+>SKT 순, 특히 종목 선정에 신중할 시점

1월 통신서비스 업종 내 종목별 투자 매력도 역시 KT>LGU+>SKT로 제시한다. 12개월 Top Pick과 마찬가지로 1월 통신서비스 월간 Top Pick도 KT로 제시한다. 재료가 복합적으로 터져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직도 KT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적지 않다. 특히 해킹 관련 이슈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은 부담이다. 과징금, 영업정지, 위약금 면제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KT에 대한 호재 반영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사실상 해킹 관련 악재는 널리 알려진 반면 밸류업 관련 호재는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2025년 KT 주주환원수익률은 SKT와 LGU+ 대비 1~2% 가량 높게 형성되었다. 그만큼 저평가되었다는 것인데 가장 큰 이유는 외인 한도 소진 문제로 LGU+와 달리 자사주를 당장 소각하지 못한다는 약점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제 주주 환원을 전액 배당금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높아져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해소가 기대된다. 자사주 의무 소각 법제화가 논의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면 이제 KT가 자사주 매입이 아닌 전액 배당으로 주주환원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배당 분리 과세 적용으로 세후 수익률은 더 높아질 것이다. 급격한 밸류에이션 정상화가 예상된다. 향후 시중 금리 인하로 세전 기대배당수익률 5% 수준까지 KT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면 76,000원까지도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LGU+의 경우엔 2026년 1월에서 3월까지 크게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지루한 주가 등락이 예상된다. 특별한 악재도 없지만 주가 상승을 유도할 만한 호재도 없기 때문이다. 외국인 한도가 소진된 KT 대신 LGU+를 외국인들이 매수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 기대배당 수익률 차이가 커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분기 실적도 크게 좋진 않을 전망이라 프리뷰 본격화에도 국내 투자자들의 상대 선호도가 높지 않을 것이며 연초에도 14,000~16,000원 박스권 흐름 전개가 예상된다.

SKT는 1월에도 보수적인 자세로 투자에 임할 것을 권한다. 2026년 1월 4분기 배당금이 발표될 것인데 DPS가 YoY 대폭 축소가 예상되며 2025년 4분기 실적도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025년 4분기 실적 부진에 연말 경영진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3분기 무배당에 이어 현실적으로 4분기 배당금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이다. 아마도 SKT 투자 심리는 2026년 4월 발표될 1분기 DPS 확인 이후에나 개선될 것 같다. 그때나 비로소 SKT DPS 2,600원이 현실적인 숫자라는 점을 투자자들이 인지할 것이며 악재 소멸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도표 33. 통신업종 종목별 투자 의견

구분	투자 의견	목표가 (12개월)	사유
KT	매수	76,000원	• 2026년에도 본사 이익 성장과 더불어 높은 DPS 성장 전망, 배당 분리 과세 수혜주
SKT	매수	55,000원	• 2026년도엔 높은 이익 성장, DPS 다시 증가 전환 예상
LGU+	매수	16,000원	• 2026년 높은 연결 영업이익 성장 전망, 낮은 PBR/PER

주: 1) 종목 투자 등급은 1. 매수, 2. 중립, 3. 비중축소, 2) 투자 의견은 향후 12개월 기준
자료: 하나증권

도표 34. 1월 통신업종 종목별 투자 매력도 순위

순위	종목명	주가(12/30)	3개월 예상 주가 밴드	P/E	P/B	평가 사유
1	KT	52,600원	50,000~75,000원	7.3	0.7	• 해킹 리스크 잔존, 하지만 곧 DPS 성장 기대감 커질 것
2	LGU+	14,720원	13,000~16,000원	12.1	0.7	• 실적 및 밸류업 호재 주가에 기반영, 요금제 개편 기대감 아직 낮아
3	SKT	53,500원	48,000~55,000원	24.4	1.0	• 배당 불확실성 지속, 상대 기대배당수익률 낮은 편

주: 2025년 예상 실적 기준, 단 투자 매력도는 향후 1개월 기준
자료: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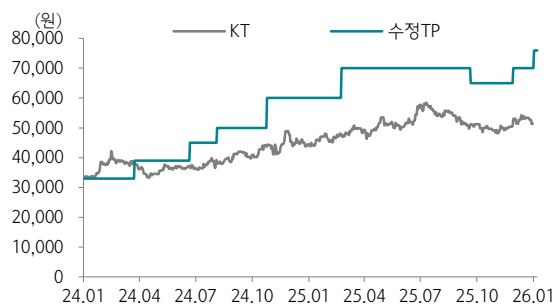
도표 35. 1월 통신업종 종목별 투자 매력도 순위 변화

구분	순위(1월)	순위(12월)	순위 변화	사유
KT	1	1	-	• 해킹 리스크 상존, 거버넌스 리스크 해소되면서 2026년 높은 DPS 상승 기대감으로 주가 오를 것
LGU+	2	2	-	• 이익 성장 및 주주이익환원 규모 증가 주가에 기반영 판단, 아직은 리레이팅 가능성 낮아
SKT	3	3	-	• 배당 정상화까지 시간 걸릴 것, 투자가 신뢰도 저하로 당분간 주가 상승 어려울 전망

주: 투자 매력도는 향후 1개월 기준
자료: 하나증권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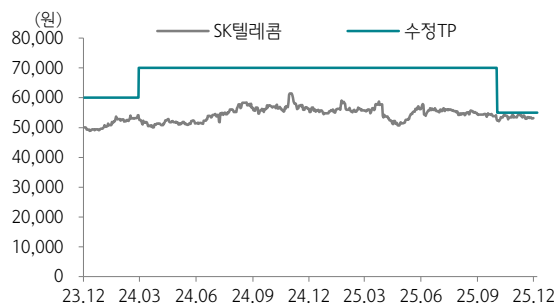
KT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1.6	BUY	76,000		
25.12.3	BUY	70,000	-24.62%	-22.57%
25.9.25	BUY	65,000	-23.37%	-21.23%
25.2.27	BUY	70,000	-25.61%	-16.57%
24.10.29	BUY	60,000	-24.54%	-18.33%
24.8.9	BUY	50,000	-18.52%	-11.60%
24.6.26	Neutral	45,000	-17.00%	-11.44%
24.3.28	Neutral	39,000	-7.79%	-3.33%
23.9.11	Neutral	33,000	5.93%	27.88%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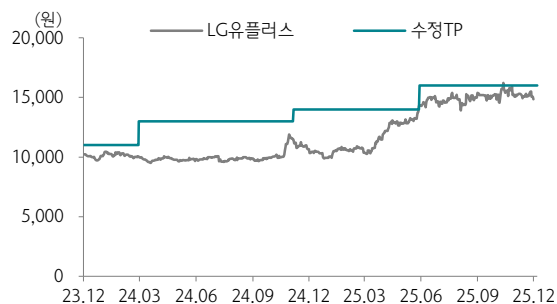
SK텔레콤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5.10.31	BUY	55,000		
25.3.28	1년 경과		-	-
24.3.28	BUY	70,000	-21.72%	-12.14%
23.12.21	BUY	60,000	-14.64%	-9.83%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LG유플러스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5.6.27	BUY	16,000		
24.12.4	BUY	14,000	-19.13%	2.14%
24.11.26	BUY	13,000	-10.26%	-8.46%
24.3.28	Neutral	13,000	-24.06%	-13.54%
23.12.21	Neutral	11,000	-8.00%	-4.64%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026년 1월 6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홍식)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홍식)는 2026년 1월 6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 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 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의견 비율공시

- 투자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5.73%	4.27%	0.00%	100%

* 기준일: 2026년 01월 03일